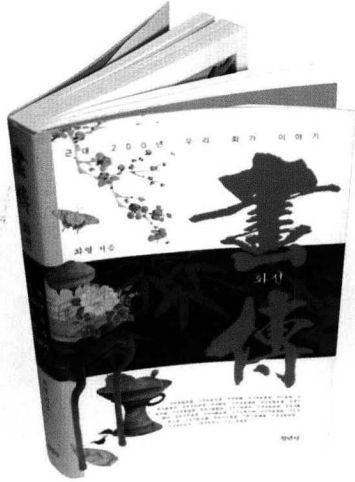


《화전畫傳》선정기



28인의 화폭에 담긴 200년의 표정과 체온

베스트셀러의 발견? '재발견' 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출판저널>의 품으론 사뭇 낯선 얘기다. 시대와 '코드'가 맞건, 대중의 문화적 구미에 들어맞건, 책 한 권이 '베스트' 반열에 오르게 된 통속의 사연에 <출판저널>은 그다지 관심 없다. 그보단 글쓰기에 들인 정열의 밀도, 사유의 깊이, 그리고 경험의 폭을 가늠하며 책을 고르고, 글쓴이를 만난다. 내밀한 공력을 재료 삼아 지식의 화로에서 진득하게 달이고 버린, '진국' 과도 같은 저작물에 주목한다. 설사 당장의 지적 유행과는 아귀가 안 맞는다 해도, 무지를 알게 하고, 내면 세계의 면역력을 높이며 영혼의 순환을 돕는 책. 그게 바로 <출판저널>이 말하는 '이달의 책'이다.

다시 시작될 한 해에 서기瑞氣라도 드리우듯, 연말 <출판저널> 서가는 것처럼 차별화된 책으로 빼곡했다. 특히 이기담의 《온달바보가 된 고구려 귀족》, 이남석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시민불복종》, 예병일의 《현대의학, 그 위대한 도전의 역사》, 황우석·최재천·김병종의 《나의 생명이야기》, 장정일의 《장정일 삼국지》, 임철우의 《백년여관》, 장차현실의 《마님난봉가》, 이상하의 《철학에는 유머가 없는가》, 한필원의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마정미의 《광고로 읽는 한국사회문화사》, 최열의 《화전》, 조은·정경자의 《조용한 열정》, 임정진의 《지붕낮은 집》, 손영학의 《나무공예》등이 눈에 띄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있을까만 《현대의학, 그 위대한 도전의 역사》와 《나의 생명 이야기》, 《백년여관》,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화전》을 그 중 유력한 '이달의 책' 후보로 골랐다. 시대와 공간을 중형으로 조합하고 재구성하며, 때론 타자他者와 자아의 교집합적 성찰과 의미찾기가 유난히 두드러진 책들이다.

질병은 인류가 영구히 동침해야 할 적인가. 하지만 《현대의학, 위대한 도전의 역사》는 말라리아와 세균, 바이러스, 암과의 시투를 '위대한 도전'으로 평가하며 이를 반박한다.

《나의 생명 이야기》에선 수의학자 황우석 박사와 동물학자 최재천 교수, 미술가 김병종 교수가 서로 다르되, 같은 반경에서 '생명'의 의미를 반추한다. 유년시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 황 박사와 최 교수의 자전적 술회는, 김 교수의 예술혼이 담긴 그림과 어우러져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진지한 생명담론으로 승화된다.

근대적 이성이 빚어낸 도덕적 무관심- 바우만이 야만스런 20세기의 원흉으로 이를 규탄하듯, 장편소설 《백년여관》은 지난 100년 이 땅에서 벌어진 '야만의 시절'에서 인간 이성의 허구를 일깨운다. 책은 영도의 한 여관을 드나든 술한 군상들을 통해 일제와 4·3, 6·25, 보도연맹사건, 베트남전, 5·18 등을 증언한다.

건축학자 한필원은 '전통'이라 불리며, 부정적 이미지로 박제된 고유의 미덕을 아까워했다. 2권짜리 책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는 우리네 삶의 질서와 조화를 찾아 전국의 전통마을을 탐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결과물이다. 책은 옷골마을, 한개마을 등 전통마을 구석구석에서 질서와 조화를 찾아내고, 땅과 인간이 공유한 따뜻한 숨결을 짚어낸다.

최열의 《화전》은 화가들의 전기가 아니다. 미술의 프리즘에 비친 근대사다. 미술사가 최열은 주류 화단에 끼지 못한 무명의 인물까지 아우른 28명의 화가들이 지난 200여 년 간 화폭에 실었던 구구절절한 곡절을 되살렸다. 사실史實을 정물처럼 관념화시킨 '정사正史'에선 접하기 힘든 표정과 체온이 그 속엔 깃들여 있다.

중세에서 근대로 이끈 거장들을 다룬 <전환기의 쌍벽>, 근대미술사의 첫 장을 연 신감각파에 주목한 <신감각의 회오리> 등은 곧 뒤집어본 19세기 미술사다. 책은 《현실과 진실》에 목말라하는 20세기 식민지 사실주의 화가들을 기렸으며, <심미의 절정>과 <황폐한 시절의 미학>에서 걱정과 신념으로 무장한 '미의 거장'들을 살뜰하게 묘사했다. 난해한 미술세계를 쉽게 풀어쓴 내공, 사유를 머금은 행간과 중후한 필치도 이 책의 백미다. 이달에도 책의 가치를 재발견했다고 기꺼워하며 《화전》을 '이달의 책'으로 꼽은 까닭이다. ■